

축산업의 안정된 발전과 정책을 바라는 마음

정 순 현

녹십자수의약품(주)

선천적으로 조상을 잘못 만나서든, 후천적으로 주인을 잘못 만나서든 간에 닭에 잘자라지도 않고 알을 제대로 못 낳거나, 살은 안찌면서 값비싼 사료만 축낸다면 주인은 이들을 도태계라는 이름을 붙여 가치없이 없애버린다. 그도 재수 좋은 놈이라야 파, 마늘 냄새에 젖어 밤상에라도 오를 수 있지 재수 없는 놈은 구정물에 푹푹 삶겨져 개밥통에 처박히기도 하고 더더욱 재수 없는 놈은 똥 냄새가 진동하는 퇴비장에 던져져 파리의 제물이 될 수 밖에 없다.

1. 나만을 생각하는 투기성 이기주의자는 도태되어야 한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축산업계는 불황과 호황이 큰 폭으로 파도치는 험한 풍랑속에서 상처 아물 날이 별로 없었던 듯싶다. 그래도 지속

적으로 개선되어 온 축산 정책과 비교적 정확하게 관측, 발표되는 축산 경기 전망 덕분에 무계획적으로 축산을 시작하는 사람이 크게 줄어든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이러한 축산 경기 전망이 오히려 불황의 늪을 더욱 깊게 파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거나 않을까 크게 우려되는 때가 많다. 돼지값이 좀 좋다 싶으면 돼지새끼를 무작정 사들이고, 닭값이 좋다 하면 하룻밤새 양계장으로 바꾸어 버리는 약삭빠른 이기주의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더욱 머리 잘쓰는 사람들—닭값이 폭락하기 시작하면 이때다 싶어 슬슬 비닐 하우스를 짓기 시작하고 병아리와 사료까지 외상으로 사들여 놓고 속으론 다른 양계업자들이 하루 빨리 정리(망해서)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닭값이 폭등하기만을 기다리는 투기성 이기주의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저 자기 맘대로 축산을 앞뒤로 메치는 이런 사람들부터 우선 도태되어야 하지 않을까?

2. 축산업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으로 간주되어선 안된다.

한때 소값이 좋아 솟송아지 한마리 잘 낳았다하면 약 백만원 가까운 돈을 받을 수 있었다. 소값이 너무 좋다보니 어중이 떠중이 돈 갖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은 소나 키워보자는 식이 되었고 때문이다. 일단 어둠 캄캄한 외양간을 대충 마련하고 말 못하는 짐승이니 내가 알게 뛰냐는 식으로 정원을 초과하여 입식시켜 놓고 그 비싼 배합 사료를 퍼 먹인다.

시원한 바람을 한번 쏘여주나, 따뜻한 햇볕을 제대로 쏘여주나, 온 몸뚱이가 물설사똥으로 얼룩지고 눈알만 반들 반들 한들 대수냐, 신경 쓰는 것은 오로지 살만 잔뜩 찌거라 인데...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이걸 해도 너무하다 싶어 하늘도 노하셨고 굵기야는 소값을 영원히 오르지 못하도록 동결시켰으리라.

3. 축산물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다.

소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때나 깊은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위 숯불갈비나, 주물럭이니, 등심구이니 하는 음식값에는 변동이 없다. 대부분의 음식점에서 1인분씩은 주문도 안받지만 그 '1인분'이란 말 자체에 우리 서민들은 불만이 많다. '1인분'이라는 뜻은 '보통 한사람이 먹기에 적당한 양'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1인분의 양을 결정했는지 의문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그러나 그 '1인분'이란 말은 우리들 호주머니 사정을 고려하여

좀 부담이 적게 지불할 수 있는 양이라는데..... 산지 축산물 값이 오를 기미가 보이면 소비자 가격은 미리 오르면서도 소값이 대폭적으로 내렸는데 왜 쇠고기 값은 내려 갈 줄을 모르는지 알 수가 없다. 호주머니 사정을 생각하여 1인분의 양을 그렇게 적당하게 정해준 것은 고맙지만 그마저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 쇠고기 좀 실컷 먹게 해줄 수는 없을까?

4. 콜레스테롤 - 아직 우리에게서 요원한 걱정거리가 아닐지?

다른 사람들은 한달에 고기를 몇 번이나 먹는지 잘 모르지만 나의 경우 다섯속가락으로 셀 정도나 되는지 모르겠다. 원래 육식을 좋아하지 않는 탓도 있지만 어려서부터 '고기'하면 특별한 날(명절, 제사 등)이라야 어렵사리 맛볼 수 있었기에 아마도 고기에 익숙치 못했나 보다.

아직도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은 고기 반찬이 있어도 주·부식이 쌀밥에 김치, 된장국이지. 서양 사람들처럼 삼시 세끼를 육류 위주로 생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고기 많이 먹는 서양 사람들이 걱정하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많이 못먹는 고기를 불안하게 먹고 있거나 않는지.....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바라고 싶은것은 우리 체질에 맞는 축산물 가공식품이 많이 개발되어 고기를 좋아 하지않는 많은 사람들도 맛있게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콜레스테롤 걱정을 하게 될 정도로 축산물 소비량이 늘어나고 안정된 축산 정책과 같은 축산인으로서 남을 걱정해 주는 푸른 공감대가 형성될 때, 우리 축산업계는 크게 비약, 발전하고 굳게 정착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사랑은 완전한 것이며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